

담화표지 '어디'에 대하여¹⁾

구 종 남
(전북대학교)

Koo, Jong-Nam. 1999. On the Discourse 'eodi'. *Linguistics* 7-3, 217-234.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eodi'(where) and discuss the grammaticalizational principle and discourse functions of 'eodi' in Korean. 'Eodi' is used as an interrogative and indefinite pronoun originally. But it is used as a discourse marker. There exist 8 evidences that 'eodi' is used as a discourse marker. This paper argued that 'eodi' had been grammaticalized as a discourse marker through the context-induced reinterpretation in discourse. And 10 discourse functions of 'eodi' were discussed. (Chonbuk National University)

1. 문제의 제기

언어 요소 중에는 특별한 어휘적 의미가 없어 명제적 의미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렇다고 별다른 문법적인 기능도 갖지 않으며, 분포면에서도 상당히 자유롭고 그 출현이 수의적인 것들이 있다. 이들은 문어보다는 구어에 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담화표지라고 한다.²⁾ 이 담화표지는 텍스트 층위(textual level)에서의 기능과 대인적 층위(interpersonal level)에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한편, 발화 상황에서 쓰이는 문장은 명제적 의미 외에 음운적, 통사적, 의미적, 화용론적 정보뿐만 아니라, 위의 담화표지에 의해 나타나는 여러 정보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의 복합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발화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연히 위의 담화표지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담화표지는 어휘적인 의미가 없거나 모호하

1) 이 논문은 1999년 11월 13일 전북대에서 열린 국어문화회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된 것임.

2) 담화표지라는 명칭 외에 화용표지 등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다. 이들 명칭에 대해서는 Brinton(1996:29) 참고.

다는 점과 담화 문맥과 화자, 청자를 고려해야 하며, 본질적으로 그것의 기능이 복합적이고 문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기능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주의가 요청된다.

최근 국어의 담화표지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담화표지의 명확한 개념, 용어, 분류, 형성 원리 등의 문제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며, 각 담화표지의 담화적 기능 파악에서도 구체적인 증거의 뒷받침 없이 직관에 의존하여 문맥적인 의미를 담화적인 기능으로 파악하는 경향도 있다. 담화표지의 기능 파악에 있어서 문맥에 명시적으로 제시되는 정보를 담화표지 자체의 기능과 혼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담화적 기능을 파악할 때는 해당 담화표지가 출현할 수 없는 경우도 고려해야 하고, 문맥 의미와의 혼동도 주의해야 하며, 비교 방법, 통합적 설명법, 후행 특정발화 연결 가능성 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런 점에 유의하여 ‘어디’의 담화표지로서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의 담화표지로서의 형성 과정 및 담화적 기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어디’는 의문대명사나 부정대명사로 쓰인다. 그런데 이런 용법 외에 ‘어디’는 분포에 있어 의문대명사/부정대명사 위치에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의미도 의문사로서의 의미인 ‘어느 곳’이나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곳’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며 문맥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담화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쓰이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어디’의 이런 기능이 의문사 ‘어디’의 문법화 결과라는 것을 보이고 그 구체적인 담화적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³⁾

2. 담화표지 ‘어디’의 형성과 담화적 기능

2.1. 담화표지 ‘어디’의 사용과 기능

2.1.1. 담화표지 ‘어디’

앞서 언급되었듯이 ‘어디’는 의문/부정 대명사로 해석될 수 없는 문장에

3) 담화표지 ‘어디’는 방언에 따라서 그 쓰임 이 다를 수 있다. 본고에서 쓰이는 자료는 전북 방언 자료임을 밝혀 둔다.

서 쓰일 수 있다.

- (1) 기영이가 어디 내 말을 들어야지.
- (2) 가. 이거 재미 있는데.
나. 어디 나도 한번 읽어 볼까?
- (3) (어디) 기영이가 (어디) 학원을 (어디) 꾸준히 (어디) 다닙니까? (어디)
- (4) A: 철수 오늘은 일찍 일어났나?
B: 어디.

(1-4)에서 '어디'와 이것이 쓰인 문장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이들 예에서 '어디'는 어휘적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 '어디'는 보통 의문사나 부정사로 쓰여 장소를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나, 위의 예문은 '어디'가 의문사로 쓰인 설명의문문도 아니고, '어디'가 불확실한 장소를 나타내는 부정사로 쓰이지도 않았다. 둘째, 이들 문장은 모두 구어적인 담화 상황에서 쓰인다고 할 수 있다. (1)의 경우도 선형 화자의 '그거 기영이한테 부탁해 봐'와 같은 발화에 대한 반응으로 쓰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어디'는 (3)에서 보듯이 그 분포가 다양하다. 의문사 '어디'는 명사가 나타날 수 있는 위치에 나타나야 한다. 즉, 분포상 주어나 목적어의 위치에 나타나야 한다는 점에서⁴⁾ 그 분포가 제한적이다. 그러나 (3)에서 보듯이 이 경우 '어디'는 문두나 문말, 주어와 목적어 사이, 목적어와 부사 사이, 부사와 동사 사이에 나타날 수 있어 분포가 자유스럽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어디'는 그 쓰임이 수의적이다. 즉, '어디'가 없어도 문장의 명제적 의미에는 변화가 없다. 다섯째, '어디'는 통사구조 밖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문장의 다른 성분과 아무런 문법적인 관련을 맺지 않는다. 여섯째, 따라서 독립적으로도 쓰일 수 있다.⁵⁾ 일곱째, '어디'는 독립적인 어조(intonation)를 형성한다. 문두에 나타날 때는 물론이고 문장 중간이나 문말에 올 때도 의문사 '어디'와는 다른 어조를 갖는다. 여덟째, '어디'는 독자적인 기능을 갖는다.

4) '어디'는 격조사가 결합되지 않을 때는 의문 부사로 기능하는데, 이 때는 부사의 위치에 나타난다.

5) 이 경우 '어디'가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은 의문사 '어디'가 문장 단편(sentence fragment)으로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과는 다르다. 후자는 문장 단편으로 쓰여도 생략된 성분과의 문법적인 관계가 명백하게 전제된다.

즉, 이는 화자의 심리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어디'의 이런 특징들은 Brinton(1996:32-35)에서 제시된 담화표지(화용표지)들의 특성에 모두 부합한다는 점에서 이는 전형적인 담화표지라고 할 수 있다.⁶⁾

2.1.2. 담화표지 '어디'의 그 밖의 특징

첫째, 의문사로서의 '어디'는 초점 강세가 놓일 수 있으나⁷⁾ 담화 표지 '어디'는 초점 강세가 놓일 수 없는 경우가 있다.

(5) 가. 미자가 철수한테 어디 책을 빌려 줬나?

나. *나같은 사람은 그런 일을 어디 생각이나 해 보겠나?
(굵은 글씨는 초점 표시)

(5가)에서는 '어디'에 초점 강세가 놓일 수 있다. 그러나 (5나)에는 초점 강세가 놓일 수 없다. 즉, (가), (나) 모두에서 '어디'가 담화 표지로 쓰였으나 초점 강세에 있어서 유동성을 보인다. 초점 강세가 놓일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담화표지 '어디'가 어휘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⁸⁾

둘째, '어디'가 의문사로 쓰일 경우는 의문문에만 나타날 수 있으나 담화 표지로 쓰이면 이런 서법 제약이 없다.⁹⁾ 담화표지 '어디'는 평서문과 의문문에서 사용될 뿐 아니라 (6)에서 보듯이 명령문과 청유문에도 나타날 수 있다.

(6) 가. 네가 어디 읽어 봐라.

나. 어디 우리도 한번 가 보자.

6) Brinton(1996:32-35)에서는 화용표지가 1) 문체상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2) 짧은 항목으로 종종 축약되며, 3) 주변적인 형식이고, 4) 여성 말에서 더 특징적이라는 것을 들고 있는데 2)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디'가 이런 속성도 모두 지니고 있다.

7) 부정대명사 '어디'는 초점 강세가 놓일 수 없다.

8) 담화표지 '어디'에 초점 강세가 놓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 21 참고.

9) '어디'가 부정대명사로 쓰이면 서법 제약이 없다.

담화표지 '어디'가 모든 서법에 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이 의문사로서의 기능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담화표지 '어디'는 다른 의문사 의문문에는 쓰일 수 없다.

- (7) 가. *철수가 어디 누구를 만났나?
 나. *어디 내가 철수를 언제 만났나?
 다. *철수가 어디 무엇을 좋아하나?
 라. *희영이가 어디 어떻게 거기에 갔나?
 마. *왜 네가 어디 그 일을 하나?

(7)에서 보듯이 '어디'는 어떠한 의문사와도 같이 나타날 수 없다.¹⁰⁾ '어디'가 어떤 정보를 요구하는 의문사와 공기할 수 없다는 것은 '어디'가 갖는 화자의 심리적 태도 표현 기능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담화표지 '어디'는 화자의 의문적 태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데(후술) 바로 이런 의미 기능과 의문사가 공기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담화표지 '어디'는 약속법에서 쓰일 수 없다.

- (8) 가. ?내가 어디 그 책 사줄게.
 나. *내가 어디 네 부탁 들어 주마.

'어디'가 약속법에서 쓰일 수 없는 것도 화자의 의문적 태도를 나타내는 '어디'의 의미 기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약속과 의문스러워하는 태도는 공존할 수 없는 것이다.

다섯째, '어디'는 '어디가' 형태로도 쓰일 수 있다.¹¹⁾

- (9) 가. 철수가 어디(가) 학생이나?
 나. 어디(가) 네가 나한테 그 말을 했나?

10) 여기서 Wh-어가 부정대명사로 해석되면 이들 문장은 적격할 수 있다.

11) '어디'는 의문대명사라는 점에서 '-가', '-을', '-에' '-에서', '-로' 등의 격조사가 결합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 '어디가' 형식만을 허용할 수 있다. 담화표지가 형태상 고정적인 속성이 강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디가' 형식을 허용하는 것은 문맥에 따라 '어디'가 완전히 문법화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9)에서 '어디가'는 '어디'와 교체되어 쓰일 수 있으나 '어디가'는 약간 다른 의미 기능을 가지고 있다(주 21 참고).

2.1.3. 담화표지 '어디'의 형성

이제 의문대명사 '어디'가 담화표지로 기능하게 되는 원리를 살펴보기로 한다. 담화표지 '어디'는 그 형태나 의미 기능으로 볼 때 당연히 의문/부정 대명사 '어디'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담화표지 '어디'는 의문/부정 대명사 '어디'가 쓰일 수 있는 문장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어디'의 모든 담화적 기능을 의문/부정 대명사 '어디' 자체의 화용론적 추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 이것의 문법화에 의해 담화표지 '어디'가 형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¹²⁾

본고에서는 담화표지 '어디'는 문맥적 재해석(context-induced reinterpretation)에¹³⁾ 의해 이루어졌다고 본다. '어디'는 장소를 나타내는 물음말이기 때문에 격조사가 자유롭게 결합될 수 있고 논항 위치에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의문사 '어디'가 쓰이면 이 장소의 물음말에 호응하는 서술어가 와야 한다. 만일 의문사 '어디'가 나타났는데도 이에 호응하는 서술어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디'는 그 자체의 의미로는 해석되기 어렵게 된다.

- (10) 가. 기영이가 미자를 어디 때렸냐?
 나. 기영이가 미자 어디 좋아하냐?
 다. 그 애가 축구를 어디 포기했냐?

서술어로 '때리다'가 쓰인 (10가)에서 '어디'는 '미자' 신체의 '어느 곳'을 의미하므로 전형적인 의문사로 쓰인 것이다. 한편 서술어로 '좋아하다'가 쓰인 (나)에서는 '사람의 신체 어느 곳을 좋아하다'라는 해석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화자가 '어디'를 의문사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청자가 화용론적으로 이런 해석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이 문장을 기영이가 미자의 어느 곳을 좋아하느냐는 질문으로 받아들이지 않

12) 사전에서는 '어디'가 담화표지로 기능할 때 이를 감탄사로 보고 있다(금성판 국어대사전 참조).

13) 이를 화용론적 강화(pragmatic strengthening)라고도 한다(Heine et.al 1991a : 71-72).

는다면 즉, '어디'를 의문사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청자는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든 문맥과 관련한 다른 해석을 찾으려고 시도할 것이다. 여기에서 문맥적 재해석 가능성이 존재한다. '어디'가 장소의 물음말이라는 점에서 화자는 '어디'에 대해 문맥상 '어디'가 어휘적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물리적 장소가 아닌 '추상적인 장소(공간)와¹⁴⁾ 관련된 화자의 의문'으로 해석하려고 할 것이다.¹⁵⁾ '어디'가 장소의 물음말 자체로 해석되지 않을 경우의 '어디'에 대한 이런 화자의 추론적 의미는 '어디'를 문장 성분상 비필수적인 성분, 즉 잉여적인 성분으로 만든다. (10나)에서 이런 '어디'는 이 문장 내용에 대한 화자의 '추상적 장소 관련 의문의 표출'이라는, 실제로는 물리적 장소로 해석될 수 없는 의미로 인식되어, 청자는 이 문장을 '기영이가 미자를 좋아하는 (증거 같은) 것이 어디 있느냐?'는 의미로 해석하게 될 것이다.¹⁶⁾ '어디'가 '추상적 장소 관련 의문'이라는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되면 이런 의미와는 적합하지만 문자적 의미와는 적합하지 않은 문맥에서 쓰일 수 있게 되는데, Heine et.al(1991a:71-72)에 의하면 이를 문맥적 재해석의 2단계로 볼 수 있다. 즉, '어디'는 서술어 '포기하다'로 인하여 '어디'가 어휘적(문자적) 의미로 쓰일 수 없는 (6다)와 같은 경우에 쓰이게 되는 것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문맥적으로 획득된 의미가 관습화됨으로써 어휘적 의미와는 다른 의미 자질을 갖는 의미 초점을 형성하여 담화 표지 '어디'는 의문사 '어디'와 동음이의어가 된다. 이를 문맥적 재해석의 3단계라고 할 수 있다(Heine et.al 1991a:71-72).

이렇게 문맥적 재해석에 의해 의문사 '어디'가 문법화되면 '어디'가 의문 대명사로서의 품사적 기능을 잃어 버리고¹⁷⁾ 그 분포가 자유로워진다.

문법화에 의한 의문사 '어디'의 이런 의미 변화를 의미의 탈색(semantic bleaching)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담화표지 '어디'는 의문사 '어디'의 의미에 기반을 두고 있다.¹⁸⁾

14) '어디'가 문자적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체적(물리적)이 아니고 추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15) 이를 인지 영역의 전이라고 할 수 있다.

16) 화자의 발화 의도를 고려하면 이 문장은 '기영이가 미자를 좋아하지 않는다'의 의미로 해석된다.

17) 이를 탈범주화(decategorization)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디'가 품사적으로 주변적(marginal)인 것이 된다.

18) 이를 문법화 용어로 어원 결정(source determination)이라고 한다(Bybee,

요컨대 담화표지 '어디'는 의문사 '어디'에서 문맥적 재해석에 의해 문법화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2.2. '어디'의 담화적 기능

담화표지 '어디'는 다양한 담화적 기능을 갖는다. 이 다양한 기능은 담화표지 자체의 의미 기능이라기보다 문맥과 관련된 것이다. 이제 '추상적 장소 관련 의문'이라는 담화표지 '어디'의 기본 의미가 구체적인 담화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¹⁹⁾²⁰⁾

2.2.1. 지각적 경험 욕구 표시

먼저 예문을 보자.

- (11) A: (옷을 입어 보고) 이 옷 어때?
 B: 어디? (좀 보자)
 B': 어디? <상대를 쳐다본다>
- (12) A: 이 냄새 어때?
 B: 어디? (냄새 좀 맡아 보자)
 B': 어디? <냄새를 맡아 본다>
- (13) A: 이 음악 어때?
 B: 어디? (들어 보자)
 B': 어디? <음악을 들어 본다>
- (14) A: 이 옷 촉감 어때?
 B: 어디? (좀 만져 보자)
 B': 어디? <옷을 만져 본다>
- (15) A: 이 맛 어때?
 B: 어디? (좀 먹어 보자.)

Perkins, Pagliuca(1994).

19) '어디'는 텍스트 층위에서의 기능은 없고 대인적 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0) 담화표지 '어디'는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와 문장의 일부로 쓰이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를 구별하지 않고 같이 다루기로 한다.

B': 어디? <맛을 본다>

(11-15)에서 A는 각각 시각, 후각, 청각, 촉각, 미각에 대해 청자의 의견을 묻고 있다. 논리적으로 청자가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지각적 경험을 해야 한다. 여기서 B, B'은 지각적 경험 욕구를 나타내기 위해 '어디'를 사용하고 있다. B의 발화에서와 같이 '어디' 뒤에 구체적인 요청의 발화가 이어질 수도 있으나 B'의 발화와 같이 '어디'만으로도 독립적인 발화가 될 수 있다. 요컨대 '어디'는 지각적 경험 욕구의 표출 기능을 갖는다.²¹⁾

2.2.2. 부정 표시 기능

'어디'는 상대가 제공하는 진술, 혹은 질문에 대해 부정의 태도를 나타내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16) A: 미자 이번에도 또 떨어졌다고 하더라.

B: 어디(가). (안 떨어졌어)

(17) A: 네것이 내것보다 더 큰 것 같다.

B: 어디(가). (내것이 네거보다 안 커)

(18) A: 영진이 오늘 지각했나?

B: 어디(가). (지각 안 했어)

(16)에서 B는 A의 정보를 '어디'를 사용함으로써 부정하고 있다. 즉, '어디' 뒤에 '안 떨어졌어'가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이 사실을 뒷받침한다. (17)에서도 상대방의 주장을 부정하기 위해 '어디'가 사용되고 있다. (18)의 경우도 '어디'가 상대방의 질문 내용을 부정하고 있다.

'어디'가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발화의 일부분으로 쓰여도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21) (11-15)에서는 상대방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어디'를 사용함으로써 이 담화표지의 '추상적 장소 관련 의문'의 의미를 표출함으로써 지각적 경험 욕구를 나타내는데, 이는 화자가 시각, 후각, 청각, 촉각, 미각이라는 경험 객체를 추상적으로 대상화하여 그 대상에 대한 정보를 장소관련어로 의문을 표출함으로써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19) A: 철수 왔다.
 B: 철수가 어디(가) 와.

위에서 B의 발화는 A의 발화를 부정한다. 이는 물론 '어디' 때문이다. 만일 '어디'가 없으면 이 문장은 A의 발화를 고려할 때 이 문맥에서는 서술문 자체로는 성립되지 않고 의문문으로는 성립될 수 있는데, 이 때는 문맥상 반항의문문이 된다.²²⁾

2.2.3. 확인 욕구 표시

'어디'는 상대방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그 사실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기능을 갖는다.

- (20) A: 박세리가 또 우승했다.
 B: 어디? (신문 등을 확인한다)
 (21) A :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지?
 B: 어디? (귀를 기울인다)

(20-21)에서 A가 제공하는 정보를 처음으로 접하는 B의 발화 '어디'는 그 정보가 사실인지 여부를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확인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표출하는 문장이다. 즉, (20)에서는 신문이나 진행되는 TV 방송 등을 통해 그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원하고, (21)에서는 실제로 소리가 나는지의 여부를 귀를 기울임으로써 확인하려는 욕구를 나타낸다.²³⁾

22) 이 경우 '어디' 대신 '어디가'가 쓰일 수 있는데 '어디가'에서 '-가'는 주격조사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디'는 의문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문맥을 고려할 때 '어디'를 의문사로 볼 수는 없다. 이 때는 여기에 초점 강세가 있을 수 있다(예문 (16-18)도 마찬가지임). 초점 강세는 청자의 주장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강하게 하거나, 구체적인 증거 같은 것을 더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기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23) 이 경우도 '지각적 경험 욕구 표시'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나, 이 때는 문맥상 상대의 질문이 아니고 상대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그것을 확인하려는 욕구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이들은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다.

2.2.4. 주의 집중 기능

'어디'는 주의 집중시키기 위한 발화로 쓰일 수 있다.

(22) 가. (놀이에 전념하는 아이들을 향해서) 어디! (여기좀 보세요)

나. (웅성거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어디'는 화자가 말하기 전에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22가)의 경우에는 후행발화 없이 '어디'만으로도 주의 집중의 기능을 나타낸다. 후행 발화가 뒤따르는 (22나)에서도 '어디'는 주의 집중의 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2.5. 결과에 대한 화자의 궁금함 표시

'어디'는 행위의 결과에 대해 화자가 궁금함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기능을 갖는다. 이 때는 '어디'가 항상 보조동사 '보다' 구문에서 쓰인다. 이 때 '보다'는 '경험'을 나타내는데 그 경험의 결과에 대해 궁금함을 가지고 있을 때 '어디'가 쓰인다고 할 수 있다.

(23) 가. 그 문 내가 한 번 열어 볼까?

나. 어디, 그 문 내가 한 번 열어 볼까?

(24) 가. 네가 읽어 봐라.

나. 네가 어디 읽어 봐라.

(25) 가. 나도 하나 먹어 봐야지.

나. 어디, 나도 하나 먹어 봐야지.

(23가)는 단순히 화자의 의향을 나타낸다. 그러나 '어디'가 쓰인 (23나)는 화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궁금함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24가)는 단순히 명령을 나타내나, '어디'가 쓰인 (나)는 청자의 장차 행위 결과에 대해 궁금함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25)에서도 (가)는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나 '어디'를 가진 (나)는 단순히 자기의 의지를 넘어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한 궁금함을 나타내고 있다. '어디'는 행위의 결과에 대한 궁금함을 나타내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2.6. 불쾌감/이해 불가의 태도 표시

'아니'는 화자의 불쾌감이나 이해 불가의 태도를 나타내는 기능도 수행한다.

- (26) 가. 너는 만화를 보냐?
나. 너는 어디 만화를 보냐?
- (27) 가. 너는 돼지 갈비를 사왔냐?
나. 너는 어디 돼지 갈비를 사왔냐?
- (28) 가. 너는 이걸 가지고 다니냐?
나. 너는 어디 이걸 가지고 다니냐?

문맥 중립적인 경우, (26-28)의 (가)는 단순한 의문을 나타내지만 '어디'가 쓰인 (나)는 강한 이해 불가의 태도 혹은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다. 위의 경우에는 청자가 문장의 주어이지만 청자가 문장의 주어가 아니어도 이런 의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다.

- (29) 가 그 놈이 나한테 학점 문제로 전화를 해?
나. 그 놈이 어디 나한테 학점 문제로 전화를 해?

(29)는 주어가 청자가 아닌 문장이다. 여기서 (가)는 단순히 독백이나 반향의문문으로 쓰일 수 있지만 '어디'를 가진 (나)는 반향의문문으로는 쓰일 수 없으며, 또한 이 문장은 (가)와는 달리 화자의 불쾌감이나 이해 불가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2.2.7. 반어적 해석 기능

먼저 예문을 보기로 한다.

- (30) A: 그거 회영이한테 부탁해.
B: 회영이가 제 말을 들겠어요?
B' 회영이가 어디 제 말을 들겠어요?

(30)에서 A의 발화에 대한 B의 발화는 수사의문문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단순히 의문문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디'가 쓰인 B'은 수사의문문으로만 쓰인다. 즉, '어디'는 표면적 진술과 상반되는 의미를 전달하는 수사의문문을 만드는 기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 (31) 가. 민호 밥 잘 먹습니까?
 나. 민호가 어디 밥 잘 먹습니까?
 (32) 가. 그 집 음식 맛이 있나?
 나. 그 집 음식 어디 맛이 있나?

(31)(32)에서도 (가)는 단순한 의문문이나 '어디'가 쓰인 (나)는 수사의문문으로만 해석된다.

위의 경우는 '어디'가 의문문에 나타나거나 '어디'가 의문문에 쓰이지 않아도 표면적인 진술과 반대되는 의미를 나타낸다.

- (33) 가. 철수가 빨리 와야지.
 나. 철수가 어디 빨리 와야지.
 (34) 가. 나도 돈이 있어야지.
 나. 나도 어디 돈이 있어야지.

(33가)는 중립적인 문맥에서 문자적인 의미, 즉 철수가 빨리 와야 한다는 의무 양상을 나타낸다. 그러나 (33나)에서와 같이 '어디'가 쓰이면 '철수가 오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34)에서도 '어디'가 없이 쓰인 (가)는 문맥을 무시하면 역시 문자적으로 해석되지만, '어디'가 쓰인 (34나)는 '나도 돈이 없다'는 표면적인 진술과는 반대되는 의미를 나타낸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어디'는 표면적인 진술과는 반대되는 의미 해석을 낳게 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즉, '어디'는 의문문이나 서술문을 반어적으로 해석되게 하는 기능을 갖는다.

2.2.8. 요청에 대한 허락 기능

'어디'는 요청에 대한 허락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35) A: 제 말씀 들어 보세요.

B: 어디.

(36) (자기의 기술을 봐 달라는 아들에게) 어디.

(35)에서 B의 발화 ‘어디’는 A의 요청에 대한 허락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36)에서도 ‘어디’는 청자의 요청에 대한 허락의 기능을 갖는다. 물론 이 경우 ‘어디’는 단순히 앞서 논의된 경험 요구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위의 경우는 문맥상 청자의 요청이 존재한다는 점이 다르다. 이 상대에 대한 지각적 경험 요구는 곧 청자의 요구를 허용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2.2.9. 판단을 위한 시간 벌기 기능

‘어디’는 즉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

(37) A: 이 정수기는 기존 제품의 결점을 완전히 보완한 것입니다. 웬만하면 이번 기회에 한번 바꿔 보세요.

B: 어디, 우리 정수기가 산 지 5년 됐지?

(38) A: (음식점에서) 불고기 어떠세요?

B: 어디, 낮에 무얼 먹었더라? 응, 중국음식을 먹었으니까..... 불고기 괜찮겠네.

(37)에서 B의 발화 ‘어디’는 A의 권유를 받아들일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하기 위해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으로 쓰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9)에서도 B의 발화 ‘어디’는 A의 제안에 대하여 그 수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요컨대 ‘어디’는 판단을 위한 시간 벌기의 기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2.2.10. 막연한 심리적 태도 표출 기능

‘어디’는 화자의 막연한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는 기능도 나타낸다. 다음 예문을 보자.

- (40) 가. 자네도 일울쬼 해야지.
 나. 자네도 어디 일울쬼 해야지.
 (41) 가. 성태도 큰 아파트를 샀다고 하더라.
 나. 어디, 성태도 큰 아파트를 샀다고 하더라.

(40가)에 비해서 '어디'를 가진 (40나)는 화자의 서술에 대해 막연하고 불명확한 심리적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41나)에서도 '어디'는 (41가)에 비해 화자가 자신이 들은 정보 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막연한 심리적 태도를 덧붙인다.

이런 화자의 막연한 심리적 태도는 때로 화자의 발화 의도를 약화시켜 발화 내용을 비단정적, 비결정적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

- (42) A: 너도 밥쬼 먹지 그래.
 B: 먹고 싶지 않네요
 B': 어디, 먹고 싶지 않네요
 (43) A: 그렇게 나오니까, 말을 못 하겠더라
 B: 그렇게 나오니까, 어디 말을 못 하겠더라.

(42,43)에서 '어디'를 가진 B'의 발화는 그렇지 않은 B의 발화와 비교할 때 화자의 막연한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화자가 발화 내용을 비단정적, 비결정적인 것으로 제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디'는 단정적이거나 결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결코', '전혀'와 공기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 (44) A: 너도 밥쬼 먹지 그러니.
 B: 결코, 먹고 싶지 않네요
 B': *어디 결코, 먹고 싶지 않네요
 (45) A: 그렇게 나오니까, 절대 말을 못 꺼내겠더라구.
 B:*그렇게 나오니까, 어디 절대 말을 못 꺼내겠더라구.

'어디'의 막연한 심리 상태의 표출은 '주저함'과 같은 사태에 대한 화자의 정리되지 않은 심리 상태를 나타내기도 한다.

(46) A: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B: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B': 어디,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46)의 A의 질문에 대해 B의 발화는 단정적이고 강한 어조를 나타낼 수 있으나 B'의 발화는 이와 같은 강한 어조를 나타낼 수 없다. 즉, 발화 강도가 낮은 것이다. 그 이유는 '어디'가 화자의 정리되지 않은 심리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어디'이 막연한 심리 상태의 표출적 기능에서 기인된다고 할 수 있다.

2.3. 담화표지 '어디'의 기본 의미와 담화 기능

본고에서는 의문대명사 '어디'가 문맥적 재해석에 의해 문법화되어 '추상적인 장소관련 의문'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보았다. 담화표지 '어디'의 이런 문법화된 기본 의미는 담화문맥 및 진술, 의문, 명령, 요청과 같은 화행과 결합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위에서 살펴본 담화적 기능인, 지각적 경험 욕구 표시, 부정 표시 기능, 확인 욕구 표시, 주의 집중 기능, 결과에 대한 화자의 궁극함 표시, 불쾌감/이해불가의 태도 표시, 반어적 해석 기능, 요청에 대한 허락 기능, 판단을 위한 시간 벌기 기능, 막연한 심리적 태도 표출 기능 등은 담화표지 '어디'의 '추상적 장소 관련 의문'이라는 기본 의미가 관련되어 있다.²⁴⁾

다만 마지막 '막연한 심리적 태도 표출'이라는 담화 기능은 '추상적 공간 관련 의문'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지 않고 있다. 이 경우는 '일정하게 정해지지 않은 곳'이라는 불확정적인 장소의 의미를 가진 부정 대명사 '어디'가 문장상 장소를 나타내는 말과 호응을 이루지 못하면 의문사 '어디'와 같은 논리로 문맥적 재해석에 의해 문법화되어 '추상적²⁵⁾ 장소(공간) 관련 의문'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데²⁶⁾ 바로 이런 기본 의미와 관련

24) '이들 담화적 기능이 '어디'의 문법화된 기본 의미와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한 논의, 즉 '지각적 경험 욕구 표시'에 대해 주 20에 제시된 것과 같은 구체적인 논의는 시도하지 않는다.

25) 문자적인 의미인 구체적(물리적) 장소로 해석될 수 없다는 점에서 '추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26) 이를테면 '그 애는 어디 가나 칭찬을 받는다'와 같은 예문에서는 '어디'가 장소를 나타내는 서술어와 호응되어 부정대명사로 해석되나 '너도 어디 밥 좀 먹어야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경우이나 담화표지 '어디'의 담화적 기능은 문맥적 추론(화용론적 강화)에 의한 기본적인 의미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결론

지금까지 담화표지 '어디'의 생성과 그 담화적 기능에 대해 논의했다.

본고에서는 먼저 의문대명사로 쓰이지 않는 '어디' 구문의 8가지 특징을 Brinton(1996)이 제시한 담화표지(화용표지)의 특징에 비추어 검토함으로써 '어디'가 담화표지임을 확인하였다.

담화표지 '어디'는 8가지 담화표지적 특징 외에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의문사로서의 '어디'는 초점 강세가 놓일 수 있으나 담화표지 '어디'는 초점 강세가 놓일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둘째, '어디'가 의문사로 쓰일 경우는 의문문에만 나타날 수 있으나 담화표지로 쓰이면 이런 서법 제약이 없다. 셋째, 담화표지 '어디'는 다른 의문사 의문문에는 쓰일 수 없다. 넷째, 담화표지 '어디'는 약속법에서 쓰일 수 없다. 다섯째, '어디'는 '어디가' 형태로도 쓰인다.

담화표지 '어디'는 의문사나 부정사로 쓰이는 '어디'가 문맥적 재해석(화용론적 강화)에 의해 담화표지로 발달했다. 즉, 의문사 '어디'의 '어느 곳'이라는 의미가 어휘적(문자적) 의미로 해석되기 어려운 맥락에서 문맥적 재해석에 의해 문법화되어 '추상적인 장소관련 의문'의 의미(부정대명사의 문법화는 '추상적 장소관련의 막연함'의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런 문법화된 의미가 담화 문맥 및 화행과 결합하여 지각적 경험 욕구 표시, 부정 표시, 확인 욕구 표시, 주의 집중 기능, 결과에 대한 화자의 궁금함 표시, 불쾌감/이해불가 태도 표시, 반어적 해석 기능, 요청에 대한 허락 기능, 판단을 위한 시간 벌기, 막연한 심리적 태도 표출 기능 등과 같은 다양한 담화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런 모든 담화적 기능은 모두 '어디'의 문법화된 기본 의미가 문맥 및

와 같은 문장에서는 '어디'가 장소의 서술어와 호응되지 못하므로 화자의 문맥적 재해석(화용론적 강화, 문맥적 추론)에 의해 '추상적 장소(공간)관련의 막연함'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문법화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법화된 의미는 위와 같은 담화상의 문장에서 별다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화자의 막연한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화행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기능이다.

참고문헌

강상호(1989). 『조선어입말체연구』. 사회과학출판사.
 고영진(1997). 「한국어의 문법화 과정」. 『국학자료원』.
 구종남(1997). 「간투가 '아니'의 의미 기능」. 『한국언어문학』, 39.
 _____(1998). 「화용 표지 '좀'에 대하여」. 『한국언어문학』, 41.
 권재일(1998). 「문법 변화와 문법화」. 『방언학과 국어학』. 태학사.
 이성하(1998). 『문법화의 이해』. 한국문화사.
 이익환외 역(1992). 『화용론』. 한신문화사.
 이정민 외(1985). 『의미론 서설』. 집문당.
 이한규(1991). "The Pragmatics of Korean Pragmatic Morpheme Com". *Studies in the Linguistic Sciences* 21.2.
 _____(1997). 「한국어 담화 표지어 '왜」. 담화와 인지 4.1.
 안주호(1997). 「한국어 명사의 문법화 현상 연구」. 한국문화사.
 이기우 외 역(1997). 『인지언어학의 기초』. 한국문화사.
 이정애(1999). 「국어 화용표지의 발달과 양상」. 전북대 박사논문.
 장석진(1985). 『화용론 연구』. 탐출판사.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1995.
 Briton, L. J.(1996). *Pragmatic Markers in English*. Mouton de Gruyter.
 Brown, P. & Levinson(1978). "Universals in English Usage: Politeness Phenona. Questions Politeness: Strategies in Social Interaction". ed. by E. Goody.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_____(1987). *Politeness*.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Freedle, R. O(1990). "An Approach to Discourse Markers". *Journal of Pragmatics* 14.
 Grumpe, J(1984). *Discourse Strateg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Heine, Claudi, Hünnemeyer(1991). *Grammaticalization*. Chicago University Press.
 Hopper, P. J(1993).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Schiffrin, D(1987). *Discourse Markers*. Cambridge University Press.